‘480일만의 QS’ 류현진, 6이닝 3실점 호투 불구 시즌 2패

4회 투런포 허용…6회에는 2루타 맞아
시거, 3안타 맹타…통산 1000안타 돌파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이 12일(현지시각) 캐나다 토론토의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2023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경기 1회 초 투구하고 있다.

류현진(36·토론토 블루제이스)이 480일만에 퀄리티스타트(QS·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를 작성했지만 ‘전 동료’ 코리 시거와의 승부는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았다.

류현진은 13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로저스센터에서 벌어진 2023 메이저리그(MLB)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6이닝 5피안타(1홈런) 5탈삼진 1볼넷 3실점으로 호투했다.

지난해 6월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토미존 서저리)을 받고 14개월 만인 올해 8월 복귀한 류현진이 퀄리티스타트를 써낸 것은 지난해 5월 21일 신시내티 레즈전(6이닝 무실점) 이후 480일 만이다.

퀄리티스타트를 작성했다는 것은 선발 투수로서 제 몫을 다했다는 뜻이지만, 승리와는 연을 맺지 못했다. 타선이 선발 맥스 셔저를 비롯한 텍사스 투수진 공략에 애를 먹은 탓이다.

팀이 0-3으로 뒤진 7회초 이미 가르시아에 마운드를 넘긴 류현진은 토론토가 3-6 패배를 당하면서 오히려 3패째(3승)를 떠안았다.

토론토 타선이 셔저 공략에 애를 먹는 가운데 먼저 3점을 내준 것이 아쉬운 부분이었다. 하필 LA 다저스 시절 한솥밥을 먹었던 시거에게 당한 것이 실점으로 이어졌다.

류현진의 투구 내용은 준수했다.

복귀 이후 한층 빛나고 있는 제구력은 이날도 돋보였다. 이날 잡은 삼진 5개 가운데 4개가 루킹 삼진이었다.

이날 최저 시속이 62.5마일(약 100.6㎞)에 불과했던 커브는 텍사스 타자들에 혼돈을 안기기에 충분했다. 류현진은 스트라이크존 구석구석을 찌르는 직구와 느린 커브 조합으로 텍사스 타자들의 타이밍을 빼앗았다.

직구 구속도 한층 올라간 모습이었다.

MLB 통계 사이트 베이스볼서번트에 따르면 류현진의 올 시즌 직구 평균 구속은 시속 88.4마일(약 142.3㎞)지만, 이날 경기에선 평균 구속 88.9마일(약 143.1㎞)을 찍었다. 최고 구속은 시속 90.6마일(약 145.8㎞)까지 나왔다.

직구가 날카롭게 제구되는데다 구속까지 오르니 변화구도 한층 위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시거와의 승부에서 밀리면서 실점의 빌미를 줬다.

2013~2019년 다저스에서 뛴 류현진은 시거와 한솥밥을 먹었던 사이다. 시거는 2015년 다저스에서 빅리그에 데뷔해 2021년까지 뛰었다.

2021시즌을 마친 뒤 프리에이전트(FA)가 된 시거는 텍사스와 10년 3억2500만달러에 대형계약을 맺고 팀을 옮겼다.

이날 경기 전까지 100경기에서 타율 0.337 30홈런 88타점에 OPS(출루율+장타율) 1.049로 활약하던 시거는 류현진에게 경계대상이었다.

지난해 4월 11일 텍사스전에서 시거를 2타수 무안타로 묶었던 류현진은 이날만큼은 시거를 봉쇄하지 못했다.

3회까지 노히트 행진을 이어가던 류현진에게 첫 피안타를 안긴 것이 시거였다.

4회초 선두타자로 나선 시거는 류현진의 초구 컷 패스트볼을 공략해 중전 안타로 연결했다.

시거의 개인 통산 1000번째 안타였고, 류현진은 시거의 기념구를 텍사스 더그아웃에 직접 던져주기도 했다.

시거에게 안타를 맞은 것은 선취점 허용으로 이어졌다. 류현진은 후속타자 로비 그로스먼에게 좌월 투런포를 얻어맞았다.

6회 추가 실점을 할 때에도 시거에게 장타를 허용한 것이 단초가 됐다.

6회초 또 선두타자로 타석에 들어선 시거는 류현진의 4구째 몸쪽 커브를 공략해 2루타로 연결했다. 토론토 우익수 조지 스프링어가 다이빙 캐치를 시도했지만, 타구를 걷어내지 못했다.

류현진은 그로스먼을 루킹 삼진으로 처리했지만, 미치 가버에게 우전 안타를 맞아 1사 1, 3루의 위기를 이어갔다. 결국 요한 하임에게 희생플라이를 헌납하고 텍사스에 추가점을 줬다.

류현진을 완벽하게 공략한 시거는 이날 텍사스 승리의 일등공신이었다. 시거는 4타수 3안타 1타점 2득점으로 펄펄 날았다.

뉴시스

사우디전 첫 승에도 클린스만호 경기력은 ‘물음표’

골 결정력 부족 여전…2경기 무실점에도 수비불안
손흥민 등 선수 개인에 의존…전술적 디테일 부족

손흥민이 12일(현지시각) 영국 뉴캐슬의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평가전 중 공을 다루고 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전반 32분 조규성의 선제골을 지켜 사우디를 1-0으로 꺾고 A매치 6경기 만에 첫 승을 올렸다.

클린스만호가 출항 후 6경기 만에 첫 승을 신고했으나, 경기력은 여전히 물음표가 따랐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3일(한국시간) 영국 뉴캐슬의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9월 마지막 평가전에서 전반 32분 조규성(미트윌란)의 헤딩 결승골을 앞세워 1-0 승리했다.

부임 후 5경기에서 3무2패로 승리가 없었던 클린스만 감독은 6경기 만에 마수걸이 승리를 신고했다.

하지만 부임 후 ‘무색무취’라는 평가를 받은 전술 운용은 여전히 물음표였다.

지난 8일 웨일스와의 평가전과 비교해 공수에서 좀 더 활발한 모습을 보였으나, 상대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54위로 한국(28위)보다 객관적인 전력상 아래로 평가받는 사우디였다.

사우디 역시 지난해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우승팀 아르헨티나를 조별리그에서 2-1로 꺾고, 최근 이탈리아 출신 명장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으나, 한국처럼 최근 A매치 5경기에서 승리가 없었다.

이런 사우디를 상대로 한국은 조규성이 골망을 갈랐으나, 추가 득점 기회를 놓치며 공격 전개 작업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조규성의 득점도 완벽한 플레이가 아닌 황인범(즈베즈다)의 패스가 상대 수비에 맞고 굴절돼 공중으로 뜨면서 찾아온 행운의 득점이었다.

명스트라이커 출신인 클린스만 감독은 부임 후 ‘4-3’처럼 화끈한 승리를 원한다고 밝혔지만, 취임 6경기에서 5골에 그치며 경기당 평균 1골을 채 넘지 못했다.

특히 사우디가 최근 5연패 동안 매 경기 2~3골을 내줬던 걸 고려하면, 1-0 승리를 마냥 기뻐할 수 없다.

‘주장’ 손흥민을 최전방 스트라이커 아래에 두고 ‘프리롤’로 활용한 전술도 세밀함이 부족했다. 감독의 의도에 따른 패턴 플레이보다, 손흥민 개인 기량을 통한 공격 전개에 더 가까웠다.

또 빌드업보다 빠른 공격 전개를 추구하다 보니, 위험지역에서 잦은 패스 실수가 나와 위기를 자초하기도 했다.

2경기 연속 무실점한 수비는 ‘괴물 수비수’ 김민재(바이에른 뮌헨)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다.

올여름 나폴리(이탈리아)에서 뮌헨(독일)으로 이적한 김민재는 지난 6월 A매치 때 기초군사훈련으로 결장했다가 오랜만에 대표팀에 복귀했다.

하지만 김민재의 가세에도 클린스만호는 수비에서의 조직적인 커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웨일스전은 골대가 한국을 구했고, 사우디전도 수비에서 어이없는 실수가 몇 차례 나왔다.

전반 7분에는 정승현(울산)과 골키퍼 김승규(알샤밥)의 호흡이 맞지 않아 실점 위기를 맞았고, 전반 26분에는 김승규의 선방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첫 승의 기쁨보다 아쉬움을 더 많이 남긴 클린스만호는 내달 안방에서 튀니지, 베트남과 두 차례 평가전을 이어간다.

이어 11월부터는 2026년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예선에 들어간다.

뉴시스

조규성이 살렸지만…클린스만 감독, 경질론은 여전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을 이끄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 6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지만 경질론은 끊이질 않는다.

클린스만호는 13일 오전 1시30분(한국시간) 영국 뉴캐슬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 A매치 평가전에서 조규성(미트윌란)의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했다.

대한축구협회가 지난 1992년 전임 감독제 도입한 후, 첫 승까지 가장 오래 걸린 사령탑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클린스만 감독이다.

감독으로서는 굵직한 발자취를 남기지도 못했고, 그가 현재 이끄는 팀은 자신이 주로 활동하는 서구권이 아닌 아시아다.

아시아의 행사에 참석했다면 그래도 합리화라도 가능했을 수 있으나, 클린스만 감독이 모습을 비추는 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 추첨식 등 유럽이 대부분이었다.

조금 더 양보해 명확한 방향 설정과 성적이라도 확실하게 보여줬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겠지만 그마저도 그렇지 않았다.

클린스만 감독은 공격에서는 손흥민(토트넘), 수비에선 김민재(바이에른뮌헨)에게 모든 걸 맡기는, 세부 전술 부족만 드러내고 있다.

무승 딱지를 떼고, 한국으로 돌아와 국내파를 점검하며 여론을 뒤집는 것보단 경기력과 상관 없이 대표팀의 주요 자원으로서 뽑아야 할 해외파들의 경기력을 관전하는 선택을 한 클린스만 감독이다.

한국 대표팀은 당장 10월에 또 A매치를 치른다. 13일 튀니지와 맞대결을 벌인 뒤 17일 베트남을 상대한다. 이달 말께 들어와, 10월 초에 명단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이의리 이탈·산체스 투구 시작 KIA 로테이션 어떻게 되나 ‘관심’

‘복귀 준비’ 산체스, 불펜 투구 소화
좌완 김기훈, 대체 선발 투수 낙점

KIA 타이거즈 선발 로테이션에서 주축 투수 이의리, 마리오 산체스가 부상으로 빠져있다. 따라서 이번 주 KIA는 2명의 대체 선발이 필요하다. KIA의 로테이션 운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의리는 지난 10일 손가락 물집 탓에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최근 어깨 통증을 털고 돌아왔으나 2경기 만에 다시 선발진에서 제외됐다. 불행 중 다행으로 심각한 부상을 피해 한 차례 선발 로테이션을 거른 뒤 복귀할 예정이다. 이의리의 올 시즌 성적은 23경기 10승 6패 평균자책점 4.19.

지난달 말 팔꿈치 인대 손상으로 이탈한 산체스는 지난주 롱토스를 소화하며 본격적인 복귀 준비에 돌입했다. 무엇보다 통증이 없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산체스는 이번 시즌 8경기에 등판해 4승 2패 평균자책점 5.28을 기록했다.

산체스는 불펜 투구를 시작했다. KIA 관계자에 따르면 산체스는 지난 12일 가볍게 불펜 투구 30개를 했고, 오는 14일 강도를 높여 다시 불펜 피칭에 임한다. 순조롭게 컨디션을 회복하면 주말에 라이브피칭을 소화할 예정이다.

KIA는 이번 주 이의리와 산체스의 공백을 메울 대체 선발 투수 2명이 필요하다. 한 자리는 좌완 김기훈이 맡는다. 올 시즌 첫 선발 등판이지만, 최근 퓨처스리그에서 꾸준히 로테이션을 돌며 감각을 끌어올렸다. 2군 8경기에서 2승 평균자책점 2.28의 호성적을 거뒀다.

나머지 자리는 황동하가 메울 가능성이 크다. 올해 10경기에서 2패 평균자책점 5.06의 성적을 냈다. 황동하는 직전 선발 등판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지난 9일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4⅓이닝 4피안타 1볼넷 2실점 쾌투를 펼쳤다.

근래 KIA는 타선의 화력을 앞세워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나성범, 김선빈, 박찬호, 김도영 등이 쾌조의 타격감을 뽐내며 공격을 지휘했다.

반면 선발 마운드는 다소 기복이 있었다. 완벽한 투타 조화와 2위 도약을 위해 선발 투수들이 제 몫을 해줘야 한다.

손아섭, 데뷔 첫 타격왕에 4번째 최다안타 1위 정조준

NC 다이노스의 베테랑 타자 손아섭(35)이 시즌 막판 타율 1위로 올라섰다. 내친김에 ‘최다 안타’ 타이틀에도 도전한다.

손아섭은 지난 12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쏠 KBO리그’ 롯데 자이언츠와의 원정경기에 우익수 겸 리드오프로 선발출전, 6타수 2안타 2득점으로 팀의 4-3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손아섭은 롯데 선발 나균안의 슬로 커브를 결대로 밀어치고, 130㎞대 포크볼을 가볍게 잡아당기는 등 좋은 타격감을 보여줬다.

최근 7경기 연속 안타를 친 손아섭은 시즌 타율을 0.341(457타수 156안타)로 유지했다. 손아섭은 SSG 랜더스의 기예르모 에레디아(타율 0.340), LG 트윈스 홍창기(타율 0.339)를 제치고 시즌 타율 1위로 도약했다.

4월 중순까지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손아섭은 금새 타격감을 회복했고, 현재까지 기복 없는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전반기에서 타율 0.331을 기록했던 손아섭은 후반기 들어 40경기에서 0.361의 높은 타율을 선보였다. 9월 11경기에서 타율 0.390으로 맹타를 휘둘렀다.

손아섭은 여세를 몰아 데뷔 17년 만에 첫 타격왕에 도전한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손아섭(156안타)은 최다 안타 2위에 올라 1위 김혜성(키움 히어로즈·174안타)을 추격하고 있다.

격차가 다소 크지만, 손아섭의 페이스를 감안하면 추격 가능성은 충분하다. NC의 올해 잔여 경기수는 키움보다 13경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손아섭은 2012, 2013, 2017년에 이어 통산 네 번째 최다 안타 타이틀에 도전한다.